

##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19. 10. 25.(금) 오후 4시~5시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정윤식위원장, 조영숙부위원장, 박성용, 장유리, 허찬행, 서창호 위원 등  
6인(박성복, 백대용위원 불참, 김경만, 나지수 위원 서면)

회사 참석 인원 : 심의실장, 시청자센터장 등 2인

### 1. 다음 회의 일정

- 11월 일정 : 11월 29일(금) 오후 4시, 12층 대회의실

### 2. 주요 회의 내용

#### ▲ 조영숙 부위원장

- 10월20일 NEWS 09의 조남주 작가의 베스트 소설 '82년 생 김지영'이 23일에 영화로 개봉된다는 보도는 <보통여자를 위해 "82년 생 김지영" 성대결 재 점화>라는 자막과 동시에 남자 앵커가 "성대결이 논란이 재 점화 되는 가운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하였음. 뒤이어 감독의 소개와 함께 <가부장제와 성차별을 담담하게 그렸다>는 자막이 이어졌고, 영화의 두 주인공인 정유미 배우와 공유 배우가 인터뷰를 통해 "누구나 공감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멘트를 하는 등 영화의 취지가 충실하게 소개되었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앞에 소개를 통해 가부장제와 성차별을 담담하게 그렸다는 이 영화가 한편에서는 평점테러를 당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영화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성대결이 재 점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정유미 배우의 SNS가 악플로 도배되었으며, 영화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 평점테러를 자행했다고 사례를 제시. 그런데 이 사례들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들임. 이처럼 정당치 않은 행위를 영화에 대해 기대 표시와 대비해서 이를 '성 대결'로 보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묻고자 함. 물론 제목과 달리 실제 보도 내용에서는 본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준다는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기자의 영화에 대한 호의는 짐작할 수 있었음. 그러나 평점테러와 영화지지를 양비론적으로 배치해서 성대결이 재 점화 된다는 식의 보도방식은 언론이 사회적 갈등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을 포기한 채 중계방송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얼마 전 2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설리 가수는 악플과 온라인 테러가 정상적인 대결의 방식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사회에 던져주었음. 악플과 온라인 테러는 정상적인 대결로 취급될 수 없음. 아울러 '페미니스트'로 호명되는 개인 또는 작품에 대한 악플과 온갖 형태의 온라인 테러를 '성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상화시켜서는 안 됨.

#### ▲ 장유리 위원

- 전체적으로 TV화면이 브라이트(Bright)해졌음, 컬러글씨에 분배도 화이트, 주황색, 레드색깔이 가끔씩 나오는게 팩트있고 포인트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음 생동감있고 재밌었음
- 일기예보 백그라운드 화면이 다른 채널보다 영상구성을 잘하여 칭찬해주고 싶음. 오늘 단풍배경 중 노란 단풍잎이 너무 예뻐서 가을낭만을 느낄수 있어서 좋았음.
- 패널들의 과격한 발언도 사라지고 과거보다 섭외도 잘하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하여 뉴스1번지도 자연스럽게 앵커 및 패널들이 편안하면서도 진행하는 것이 보기 좋았음.
- 기자들의 발음이 거슬릴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결 좋아졌음, 특히 윤솔 기자의 발음이 좋아 전달할 때 모든 발음 발음이 접속어까지 명료하게 들려서 팬이 될 정도로 좋았음.
- 포털 인터넷뉴스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보도 되고 있는데 TV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 방영되는 것을 보기 어려움. 블록체인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모든 기술의 기초가 될 듯 하고 의외로 블록체인에 대다수의 사람이 관심이 많음. 타 방송사에 안 할 때 한번쯤 다루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임

#### ▲ 박성용 위원

- 10.23(화) 뉴스에서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계 반발"이라는 제하의 뉴스를 보도함, 그러나 뉴스내용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불이익)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상기 뉴스내용만으로는 일반 시청자 대부분은 왜 농민이 반발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임, 보도자료 내용만으로 시청자 이해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시청자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함
- "연합뉴스TV 경제토론 평화경제를 말하다" 방송내용을 보고난 후,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음, 먼저, 방송시간대가 일요일(9.30) 밤 11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월요일 출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시청이 불가능하였으며, 포럼의 전반적인 내용과 형식 등도 포럼을 왜 하는지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음, 방송시간 때우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 버릴 수가 없었음, 비슷한 시기(10.1, 화) JTBC에서는 손석희 사회로 "검찰, 조국장관"관련 토론회가 방송되었는데, 프라임 시간대(저녁 9시?)에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짐, 포럼 등의 방송 시, 시청자의 이해는 물론이고, 해당 주제의 정부 정책입안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포럼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방송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
- 태풍 등과 같이 통상적인 날씨상황이 아닌 일기예보를 할 경우에는 시청자에게 경각심 등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중량감 있는 아나운서나 또는 기상 전문가가 출연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를 요망함

- 언론이 바른 사회로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당시 사회현안 문제를 분야별, 영역별 등으로 나누어 시리즈로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를 요망함,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사태이후로 우리사회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공정성 문제)가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대통령 국회연설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로 나온, 이 경우, 방송사에서 사회 각 분야나 영영별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임,
- 뉴스 진행자의 부자연스러움이 최근 많이 해소된 느낌이 들

#### ▲ 김경만 위원

- 은성수, 'DLF 사태, 은행·투자자 공동책임'(10. 11자 07:45분 뉴스보도), 금감원, 다음날 '다음날 DLF 분쟁 조정...역대 최고배상 비율전망'(10. 13 10:10분), 우리·하나은행 판매DLF 20%는 최고수익 3%에 불과(10. 21. 12:25분 보도), 금감원은 DLF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중에 있고 중간검사결과와 국정감사 등 진행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다수 드러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예상된다는 뉴스 보도, 금감원장 지적대로 은행과 투자자의 귀책이 있고 일정한 공동책임의 범위는 피할 수 없지만 금융권의 파생상품을 관리감독 해야할 정책당국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됨, 하루빨리 배상비율이 확정되어 충분한 설명의무위반 등의 과실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은행의 책임부분에 대한 귀책부분이 명확해져 재산의 상당부분의 손실을 가져온 투자자들의 망연자실한 마음을 달래주길 기대하고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보도의 객관성과 충실성을 기해 왔지만 더욱 더 세심한 보도노력이 필요하고, 과거에 키코사태로 수출기업들이 도산 등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고 금번 DLF 사태처럼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
- 여당 '공수처법 우선처리 야당 사법장악 테러 (10. 21. 07시13분 보도) 여의도 막 전막후 공수처 설치놓고 여·야 공방격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이후 정치권은 공수처 설치여부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음, 여당은 사법개혁법안중 공수처 설치법안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야당은 공수처 추진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치테러'라며 반발한다는 기사이며, 공수처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약자로서 공수처의 대상과 도입배경의 역사에 대해 심층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 전문가 멘트를 추가하여 여당은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중 공수처 설치를 우선 분리해 최우선 처리코자 하는 이유와 야당의 주장인 정권의 장기집권용이고 홍위수사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를 설명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라는 생각
- '2골' 손흥민... 121골 '전설'차붐의 한국이 최다골 타이(10. 21. 07시30분 보도) 손흥민의 멀티골 의미를 보도하면서 옥에 티로 과거 골을 기록한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은 다소 아쉬움, 아울러 화면의 제목도 잘못되어 아쉬움
- 김정은 '남측에게 의존한 선임자들 잘못'낙후된 금강산 남측시설 싹 들어내라'(10.

23, 라이브투데이 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현지지도시 남측의 시설을 싹 들어내고, 철거를 전제로 남측관계 부문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전화로 연결, 발언의 배경과 실제 발언내용, 의미 등에 대해 자세한 부연설명을 내 보낸 것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람직 했다고 생각, 연합뉴스티브이는 지난 9월26일 글로벌 경제전쟁; 평화경제를 모색한다는 큰 행사를 진행한 바 있고.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은 지난 10월 22일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평화경제에 대한 노력과는 반대로 남북협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

#### ▲ 서창호 위원

- 10/4, 5, 7, 9, 10 화성 8차 살인사건 진범 논란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에 대한 강압.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짐. 윤씨 관련하여 단순히 위와 같은 논란이 있다는 것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고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수사관의 강압,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좀 더 심층 취재, 보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0/15 크루즈 선장 기소의견 송치 소식을 전달함. 사건 발생 이후 잊혀져 가고 있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 후속보도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고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함께 다뤄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 태풍 19호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 보도 이외에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연이어 보도함. 특히 10/21 라이브 이슈에서는 선임기자가 출연하여 약 5분가량 동안 후쿠시마 참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 재판 무죄 논란부터 주민들의 목소리 등 다각도로 살펴봐서 좋았음.
- 설리 사망 관련 유명연예인의 죽음에 대해 동반으로 목숨을 끊는 베르테르 효과 우려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다뤄주면 좋을 것 같음,
-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을 축제 소식도 전해주면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음.
- MBC 100분토론 유시민과 홍준표 두명 토론내용을 보고 정규시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끝날까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을때는 계속 이어서 유튜브를 활용하여 30분 더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이 참 좋았다. 연합뉴스티브이도 대담방식의 프로그램은 참고했으면 좋겠음.

#### ▲ 허찬행 위원

- 시청자게시판이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를 하고 보기 좋아졌음. 게시판 내용을 보면 세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진행자-아나운서 관련된 글, 수어통역사에 대한 글, 아슬아슬한 경계의 글, 진행자에 대한 시청자의 글들이 간혹 있으나 아무런 피드백이 없음. 여성 아나운서의 희롱이 되는글은 자제해달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시청자게시판 운영 목적이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 만큼 좀 더 신경 쓰

길 바람, 게시 글 중 상당수가 연합뉴스TV 시청에 관계없는 글이지만, 일부 의견은 연합뉴스TV와 관련된 시청자의 의견인 만큼,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어도 답변을 남겨줄 필요가 있음. 또한 게시판 운영 정책을 고지한 만큼,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조치 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

-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한 문제점,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 강령에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 - '사망' '숨지다' /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자제 -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겨' '투신 사망' 등', '자살동기를 단순화한 보도 자제 - 자살은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음',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음',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 제공' 10월 14일 19:08 / "가수 겸 배우 설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제목의 보도.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 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목에 경찰 의견이라고 했지만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부각, 10월 15일 18:53 / '우울증 극단선택' 설리...도 넘은 악플들 제목의 보도 속옷을 입지 않는 건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가수 설리, 최진리 씨 지난달 SNS를 통해 노출사고 영상이 나간 뒤 관련 기사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허위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는 건 물론, 성적 비하 글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최 씨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악성 댓글들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예) '속옷을 안 입을 권리' 발언 부각이나, 사진, 악플 내용, SNS 상의 메시지 공개 등 ⇒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 제공하지 않음 ⇨ 연합뉴스TV가 과연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부합하는 보도를 했는지를 성찰하고, 이후 자살 보도를 함에 있어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음

#### ▲ 나지수 위원

- 10.22. 헤드라인 "인천공항 보안요원 '음란행위, 폭행' 잇단 입건" : 뉴스 내용을 들으니 '공연음란' (공연+ 음란한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주지 못하는 헤드라인

- 러시아군용기 출격, 침범이 처음이 아닌데 러시아군용기가 수차례 침범한 상태인데, 표 등으로 정리해주거나 우리나라 지도 등 침범영역 지도 등으로 표시해주면 어떨까, 우리군 대응이나 국방부 인사 멘트 등 있으면 좋을 듯 싶음

- 하단 자막 "월급쟁이 3명 중 1명 월 200만 원 못 번다" : 200만원이 맞지 않음 , 띄어쓰기 등도 신경 써 주었으면 함

#### ▲ 정윤식 위원장

- 대제목, 소제목 제목의 확실한 차별화, 특성화, 전체 프로그램 제목이나 뉴스내의 소제목들도 서로 유사하여 프로그램의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시간대별 이름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게 함, 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이름을 붙이거나, 1주의 뉴스 집중점검, 진행 앵커의 이름을 붙이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명명하여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뉴스 시작과 끝 시간의 명확화, 뉴스가 정시에 시작하지 않지도 않고 끝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음, 30분 또한 1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방안내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의 관광 안내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유익했음, 관광 명소 및 나들이 코스를 소개할 뿐 만 아니라 맛집, 철도 및 버스여행방법, 숙박 안내 등도 간략히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함,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 좋을 것임, UHD 풍경 프로그램, 지역 뉴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대형화가 바람직 해 보임 (예 : KBS 6시 내 고향, 생생 정보통 등)

- 재난 재해 및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 특성화 연합뉴스TV는 재난 재해 방송이나 국가위기 상황( 예:2+2 남북 판문점 목침지뢰 사건 회담 등 ) 등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돼지 살처분 문제, 강원도 산불 이재민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신뢰도를 높임, 시의성이 떨어지더라도 사건 종료시까지 계속 뉴스를 추적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임

- 경제 및 생활밀착형 뉴스 강화, 9월, 10월 한국의 TV매체는 조국 장관 관련 보도로 쏠림현상이 심했음, 짐작컨대 11월은 공수처 문제와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으로 뉴스가 점철 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 뉴스(분양가 상한제 등), 입시문제(정시, 수시문제), 문화문제(이어령 교수 암투병 중/ 한국문화의 미래 취재), 기업정보 , 한일문제 등 다양한 분야로 뉴스 스펙트럼을 전개하는 것도 경쟁력의 한 방안

- 토론 프로그램의 콤비 경향, MBC는 100분 토론에서 홍준표-유시민, JTBC는 이동관-김종배, TV조선은 박형준-박지원(강적들) 등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르지만 서로 친하고, 이른바 케미가 맞는 토론자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트렌드가 있음, 남북 문제, 국내 정치문제, 경제문제 등 분야별로 콤비 토론자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출연으로 토론 프로그램의 흥미와 질을 높이는 방안 제언

- 신인 발굴 : 정경심교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김성수변호사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설명이 탁월했음